

# 일제침략기 해주구세요양원의 결핵관련 홍보자료 판매와 수익금 활용에 대한 고찰\*

신동규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최초 결핵전문병원이었던 해주구세요양원의 결핵관련 자료들에 대한 판매 활동과 수익금의 활용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주문용 엽서'와 '홍보용 소책자' 등을 토대로 홍보자료들의 판매를 위한 '씰 캠페인'이 대중들의 인기 속에서 결핵기금의 확대로 이어져갔음을 밝혔다. 이것은 1932년에 350엔, 1933년에 1,118.09엔, 1934년에 1,507.81엔, 1935년에 1,791.22엔이라는 수익금의 증가 수치가 이를 입증해준다. 둘째, 판매활동은 '씰 캠페인'과 핵심인사들에 대한 우편 및 '주문용 엽서'를 통해 이루어졌고 판매 실적이 좋은 기관에 대한 포상과 홍보자료의 '무료증정'이라는 방법도 이용되었다. 수익금은 대부분은 ① 결핵예방과 박멸운동, ② 빈곤한 결핵환자, ③ 결핵연구, ④ 결핵관련 책자의 발간에 사용되고 있었고, 전국의 결핵관련 기관과 병원에 배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주구세요양원은 식민지 조선의 결핵예방과 박멸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 : 해주구세요양원, 셀, 결핵, 크리스마스 씰

---

## 목 차

---

### 서 론

제1장 홍보자료를 통한 '씰 캠페인'과 대중의 호응

제2장 홍보자료의 판매활동과 수익금 사용 실태

### 결 론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일제강점기의 크리스마스 씰과 우표, 엽서 등을 수집해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씰을 발행한 해주구세요양원의 결핵관련 홍보자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본고에 소개한 대부분의 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필자가 소장한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자료의 수집은 이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것 이외에 지난 5~6년간 국내외 전문수집가로부터의 직접 구입, 국내 코베이(kobay)를 비롯해 외국의 이베이(ebay)·델캠페(delcampe)·미첼 로저스(Michael Rogers Inc) 등의 국내외 전문옥션에서 입찰 등을 통해 수집한 것이라는 점도 부언해 두겠다.

## 서 론

해주구세요양원(海州救世療養院. 이하 ‘요양원’으로 약칭)은 1928년 감리교 선교의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 박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결핵전문 요양병원이다. 이 요양원에서는 결핵환자의 진료와 결핵 연구, 나아가 결핵 기금 확보를 위한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셀’(이하 ‘셀’로 약칭)도 제작하여 1932년부터 1940년까지 발행하고 있었다(신동규 2013, 동 2015).<sup>1)</sup> 또한 요양원에서는 결핵예방과 퇴치를 위한 각종의 홍보자료도 발행하였는데, 100여종 이상의 다종 다양한 홍보자료에는 비매품과 판매품이 있었고, 이중에서 판매품은 전액이 결핵 기금으로 활용되면서 열악했던 식민지 조선의 결핵예방과 퇴치에 커다란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이들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출고에서 ① 홍보용 소책자, ② 모금용 편지, ③ 촛불봉투와 셀봉투, ④ 셀 도안설명서, ⑤ 셀 카드와 셀 엽서, ⑥ 한지연하장과 목판연하장, ⑦ 보건증권, ⑧ 홍보용 미니포스터와 셀 포스터, ⑨ ‘페즐 맞추기’와 달력 등을 기타 홍보물로 분류하여 그 성격을 검토하였지만(신동규 2016),<sup>2)</sup> 이들 홍보자료가 어떻게 판매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과제로 남겨두고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요양원에서 발행한 각기의 홍보자료들이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당시 홍보자료 중에서 판매품의 대부분은 해주구세요양원의 ‘크리스마스 셀 위원회’ 위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한 ‘셀 캠페인’과 우편에 의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판매품들은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으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당시 해주구 세요양원의 활동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는 홍보자료의 판매 수익금이 결핵퇴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점은 해주구세요양원의 결핵예방과 퇴치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국의 결핵사에 명확히 각인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1) 해주구세요양원의 크리스마스 셀 관련, 요양원의 설립 역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상기의 두 논문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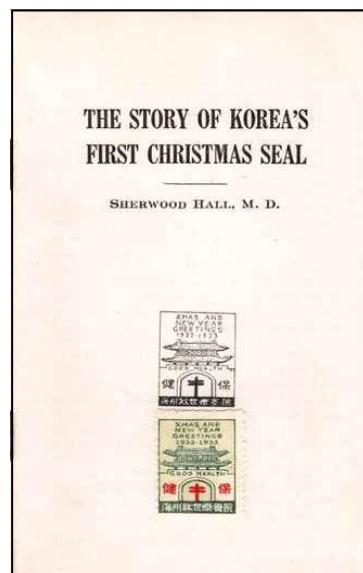
2) 한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고에서 언급한 홍보자료의 분류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

## 제1장 홍보자료를 통한 ‘씰 캠페인’과 대중의 호응

그간 요양원에 대해서는 식민지 조선의 결핵예방과 대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Park Yun Jae 2013, 최은경 2013), 요양원에서는 결핵예방과 퇴치를 위해 100여종 이상에 이르는 홍보자료를 발행하고 있었다는 것도 연구된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홍보자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또 요양원의 판매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양원의 홍보자료에는 무료 배부의 비매품으로 결핵기금 모금요청이나 홍보용의 순수한 목적에서 발행된 ‘홍보용 소책자’(일부 판매), ‘모금용 편지’, ‘미니포스터’, ‘씰 도안설명서’, ‘촛불 봉투’와 ‘씰 봉투’(특별가로 일부 판매), ‘결핵관련 책자’가 있으며, 판매품으로는 포스터(양지·한지), ‘목판연하장’과 ‘한지연하장’, ‘씰 카드’와 ‘씰 엽서’, ‘결핵관련 책자’, ‘퍼즐 맞추기’와 달력, ‘보건증권’ 등이 있다(신동규 2016). 물론, 비매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비매품과 판매품의 판매 여부와 가격은 다른바 ‘주문용 엽서’라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후술).

먼저 무료 배부된 홍보용의 비매품을 살펴보겠다. 다만, 한 가지 부언해두고 싶은 것은 본고에서 이용한 홍보자료의 이미지는 이미 전술한 졸고(신동규 2016)에서 모두 제시했지만, 본고의 논지 전개상 필수적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대표 이미지 한 개씩만을 인용하여 대표 이미지의 예시로 삼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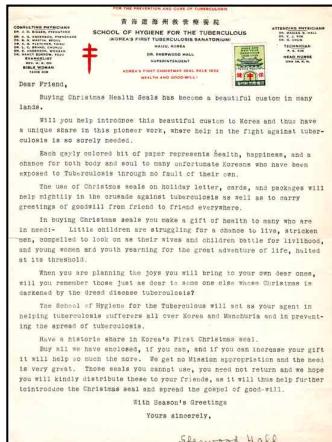
비매품의 첫 번째는 <그림 1>의 ‘홍보용 소책자’(Sherwood Hall 1933:14)인데, 이 책자는 ① 홀 박사에게 온 개인편지, 세계 각지로부터 요양원에 기부된 결핵기금의 현황, ② ‘크리스마스 씰 위원회’의 결핵퇴치를 위한 모금활동과 씰 판매 실적, ③ 모금된 결핵기금의 사용처, ④ 요양원의 활동 등을 홍보한



<그림 1> 1932년 홍보용 소책자,  
88.5mm×146.5mm

것으로 본고를 고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1932년 첫 발행 이후 1933년부터는 영어를 비롯해 한국어와 일본어로도 발행되었으며, 1935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한국어와 일본어 발행본은 현재까지 미발견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순수한 홍보 목적으로 무료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판매되기도 했다. 1935년 홍보용 소책자에 의하면, 서울에 있었던 바커(Rebecca W. Barker)라는 인물이 『(한국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쌀 이야기』의 복사본 여유가 있으신지요. 50엔을 동봉합니다. 이 금액은 내가 주문한 양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삼아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Sherwood Hall 1935:8-9)라고 훌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즉, 소책자가 공식적으로 판매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필요에 따라 판매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판매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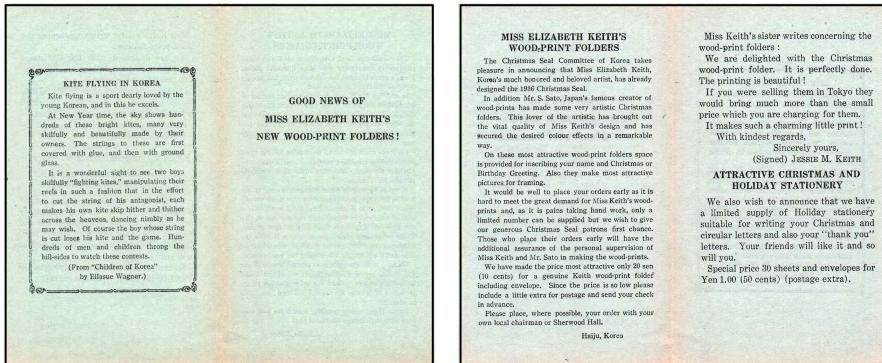
이러한 비매품에는 결핵기금 확보를 위해 외국에 발송한 ‘모금용 편지’(영문, <그림 2>), 결핵예방과 홍보 및 셀 판매 촉진을 위한 미니 포스터(국문·일문 혼용, <그림 3>)와 크리스마스 ‘셀 도안설명서’(<그림 4>), 앞면에 촛불이 도안된 일명 ‘촛불 봉투’(<그림 5>)와 셀이 도안된 ‘셀 봉투’(<그림 6>)가 있다. 이 중에서 ‘모금용 편지’와 ‘촛불 봉투’ 및 ‘셀 봉투’는 해주구세요양원과 홀 박사의 홍보자료 발송 및 결핵기금 확보를 위한 편지 발송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홍보용으로 무료 배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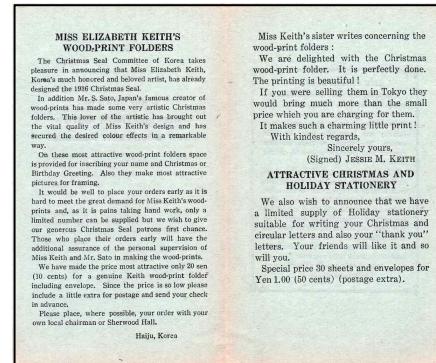
〈그림 2〉 1932년 모금용 편지,  
211mm×273mm



〈그림 3〉 1935년 미니 포스터  
191mm×267.5mm



〈그림 4-1〉 1936년 쌀 도안설명서  
(대형 앞면), 175.5mm×146mm



〈그림 4-2〉 1936년 쌀 도안설명서(뒷면)



〈그림 5〉 1934년 촛불 봉투, 157mm×93mm



〈그림 6〉 1939년 쌀 봉투, 170mm×94mm

다만, 1936년도 ‘쌀 도안설명서’ 대형의 뒷면인 <그림 4-2>에 의하면, “편지지 30장과 봉투 특별가 1엔(50cents)[송료별도]”이라고 밝히고 있어 봉투와 편지지도 ‘홍보용 소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의에 따라 특별히 판매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문용 엽서’는 약간 인쇄 내용이 다른 <그림 7>의 A형과 <그림 8>의 B형이 존재하는데, A형에는 “요청하면, 무료 항결핵 책자를 보내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B형 (10)번에는 “ⓐ 무료 항결핵 책자, ⓑ 『결핵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첫 번째 판본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 송부, ⓒ 또한, 한정판 포스터”라고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결핵관련 책자’를 비롯해 포스터의 일부도 무료로 배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RDER BLANK		
(1) Christmas Seals		
(a) Booklets ₩ 1.00 each	number.....	
(b) Sheets ₩ 1.00 „	number.....	
(2) Christmas Seal Enlargements, Poster size		
(a) Plain paper ₩ 1.00 each	number.....	
(b) Korean Paper ₩ 1.50 each	number.....	
(3) Christmas Seal Woodprint folders		
With envelopes, 20 sen each	number.....	
(4) Christmas Seal Korean Paper Folder		
With envelopes, 10 sen each	number.....	
(5) Christmas Seal Cards		
With envelopes, 2 for 10 sen	number.....	
(6) Special Christmas and New Year Cards for Korean use. (Stork Design) 2 for 5 sen		
(a) With Health Rules	number.....	
(b) Without Health Rules	number.....	
(7) Books on Tuberculosis in Korean		
(a) A Health Guide For a Tendency to Tuberculosis. 20 sen each	number.....	
(b) Tuberculosis, A Preventable and Curable Disease 60 sen each.	number.....	
(8) Jig-Saw Puzzle. Elizabeth Keith Design, ₩ 2.50	number.....	
(9) Health Bonds		
Silver Bond ₩ 10.00	number.....	
Gold Bond ₩ 20.00	number.....	
Life Bond ₩ 100.00	number.....	
(10) Free anti-tuberculosis tracts sent on request	number.....	
If possible please send your checks in with the order, and include a little extra for postage. Make checks or money orders payable to Dr. B. Block, Pyeng Yang, or Dr. S. Hall, Haiju, Korea.		
Signed.....		
Address.....		

ORDER BLANK		
(1) Christmas Seals		
(a) Booklets ₩ 1.00 each	number.....	
(b) Sheets ₩ .50 „	number.....	
(2) Christmas Seal Enlargements, Poster size suitable for Framing ₩ 1.00 each	number.....	
(3) Christmas Woodprint folders with envelopes, 20 sen each	number.....	
(4) Christmas Seal Korean paper Folders with envelopes, 10 sen each	number.....	
(5) Christmas Seal Cards with envelopes, 2 for 10 sen	number.....	
(6) Special Christmas and New Year Post Cards for Korean use, 2 for 5 sen		
(a) With Health Rules	number.....	
(b) Without Health Rules	number.....	
(7) Books on Tuberculosis in Korean		
(a) "Facts Everyone Should Know About Tuberculosis," 10 sen each	number.....	
(b) "A Health Guide for those who have a Tendency to Tuberculosis," 20 sen each	number.....	
(c) "Tuberculosis, A Preventable and Curable Disease" 60 sen each	number.....	
(8) Christmas Jig-Saw Puzzle. ₩ 2.50 number.....		
(9) Health Bonds		
Silver Bond ₩ 10.00	number.....	
Gold Bond ₩ 20.00	number.....	
Life Bond ₩ 100.00	number.....	
(10) (a) Free anti-tuberculosis tracts		
(b) "Facts Everyone Should Know about Tuberculosis" will be sent free until the first printing is exhausted	number.....	
(c) Also a limited Supply of Posters		
If possible please send your check in with the order, and include a little extra for postage. Make checks or money other payable to Dr. B. Block, Pyeng Yang, or Dr. S. Hall, Haiju, Korea.		
Signed.....		
Address.....		

〈그림 7〉 1934년 주문용 엽서 A형(뒷면),  
89mm×142mm

〈그림 8〉 1934년 쌀 주문용 엽서  
B형(뒷면). 89mm×142mm

여기서 한정판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인지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홀 박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결핵 퇴치용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에 있는 학교와 병원 책임자들에게 보내고 있었다. 홀 박사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씰 캠페인’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포스터를 받으면 자기가 속한 기관에 전시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우편물의 겉봉에는 “선물임, 무료 증정”이란 글자를 적어 함께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셔우드 홀 2003:535). 즉, 포스터는 ‘씰 캠페인’과 홍보자료 판매증진의 일환으로 무료로 배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판매용 홍보자료의 가격(상기 ‘주문용 엽서’ 참조)과 판매 상황에 대해서 ‘주문용 엽서’와 ‘홍보용 소책자’를 토대로 검토해 보겠다. 포스터는 당해 연도의 쌀 도안을 이용한 한지와 양지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결핵예방 홍보문구가 삽입된 대형과 홍보문구가 없는 소형이 존재한다.<sup>3)</sup> 〈그림 9〉의 한

3) 여기서 언급하는 대형과 소형이라는 의미는 자료의 전체 크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취계에서

지 포스터는 1장당 1.5엔, <그림 10>의 양지 포스터는 1엔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홍보자료 중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어 판매액이 높았던 품목 중의 하나이다.



<그림 9> 1935년 쌀 포스터 대형(한지),  
465mm×406mm



<그림 10> 1935년 쌀 포스터  
소형(양지), 467mm×636mm

1933년 홍보용 소책자에는 비거 박사가 홀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포스터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며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교회, 학교 그리고 가게 앞에 붙여 놓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우리는 2·3 주일 안에 상당한 양서와 쌀이 도내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것을 확신합니다.”(Sherwood Hall 1933:9-10)라고도 언급하고 있었다. 또 1934년에는 광주의 루이스 브랜드라는 사람은 ‘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부 상점에 포스터를 붙이고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쌀도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더 많은 포스터를 보내 달라고 홀 박사에게 주문하고 있었다는 점(Sherwood Hall 1934:13), 1935년에는 포스터를 1934년보다 두 배를 만들었지만 수요량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 인쇄를 해야만 했고 쌀의 도안이 국내는 물론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있어 잘 팔렸다고 홀 박사가 언급하고 있었던 점(Sherwood Hall 1935:3), 동년에 전국 각지로부터 추가 주문이 있었다는 점(Sherwood Hall 1935:5·12)<sup>4)</sup>으로부터도 포스터의

통용되는 자료 속에 쌀 도안이 차지하는 그림의 범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4) 1935년 홍보용 소책자에 의하면, 함흥·순천·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포스터를 편지로 주문하고

인기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것은 크리스마스 셀의 판매고를 올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 11〉 1934년 목판연하장, 23mm×182mm, 봉투 생략



〈그림 12〉 1934년 쌀 한지연하장, 175mm×137mm, 봉투 생략, 연하장 부분만 펼친 모습

다음으로 목판연하장과 한지연하장이다. <그림 11>과 같은 목판연하장은 두꺼운 종이를 반으로 접어 표지에 목판화를 붙인 형태이고, <그림 12>의 한지연하장은 섬유소가 보이는 한지에 당해 연도의 쌀 도안을 인쇄한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1934년의 자료를 예시로 들었는데 목판연하장은 1934년부터 1940년까지 발행되었으며 1장에 20센(錢, 봉투 포함)이었고, 한지연하장은 1934년과 1935년에만 발행되었는데 1장에 10센(봉투 포함)이었다. 목판연하장도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국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품목으로 1934년 홍보용 소책자에 의하면, 도쿄에 살고 있던 제시에 키스(Jessie M. Keith)라는 여성은 훌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는 크리스마스 목판화 카드를 받고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그것은 완벽히 만들어졌습니다. 와타나베 선생의 인쇄물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만약 동경에서 그것을 판매한다면 당신이 책정해 놓은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매혹적인 작은 인쇄물입니다.”(Sherwood Hall 1934:18)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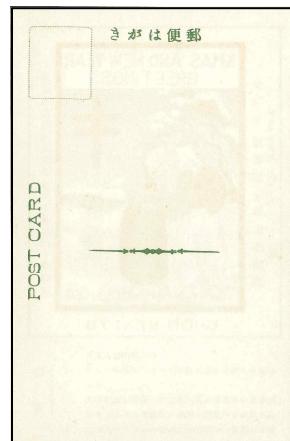
언급할 정도로 예술적 가치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937년부터 목판연하장은 1장에 30센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구입자의 수요가 많고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Sherwood Hall 1934:19).<sup>5)</sup>



〈그림 13〉 1933년 카드,  
86mm×137mm



〈그림 14-1〉 1933년  
엽서(소형), 90mm×141mm



〈그림 14-2〉 1933년 썰  
엽서(소형) 뒷면

셋째는 <그림 13-1>의 ‘씰 카드’(뒷면 백지)와 ‘씰 엽서’(뒷면 엽서 형식)인데, 이 두 자료 역시 당해 연도의 씰 도안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엽서에는 <그림 14-1·2>에 보이듯이 홍보문구가 있는 소형과 <그림 15>와 같이 문구가 없는 대형이 있으며, 씰 카드는 문구가 없는 대형만이 존재한다. 모두 1933년부터 1940년까지 발행되었으며, 2장에 10센이었지만, <그림 16-1·2>에 보이는 1934년 학이 그려진 엽서 2종만은 2장에 5센이었다. 엽서 또한 상당한 인기가 있어 1933년에 함흥의 선교의사 머레이로부터 “이곳에서는 엽서와 씰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첫 공급품은 동이 났으며 추가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Sherwood Hall 1933:7)라는 편지를 받았을 정도였다. 이후 홀 박사는 “엽서는 개척 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공중건

5) 여기서 홀 박사는 목판화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려면 미리 주문해둘 것을 충고합니다. 공급량은 제한적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강지침(결핵예방 홍보문구)이 인쇄되어 있는 엽서는 매우 효율적이며 인기도 있었다.”(Sherwood Hall 1935:16)고 자평하고 있다. 다만, 엽서는 인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수익이 적었다는 것도 부언하고 있어(Sherwood Hall 1935:6) 엽서가 해주구세요양원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1936년 엽서 대형, 87mm×140mm



〈그림 16-1〉 1934년 엽서 소형, 90mm×139mm



〈그림 16-2〉 1934년 엽서 대형, 90mm×140mm

넷째, ‘결핵관련 책자’도 판매용으로 제작되었는데, 전술한 ‘주문용 엽서’ B형의 (7)번에 의하면, 『결핵에 관해 모든 사람이 알아야할 사실(Facts Everyone Should Know About Tuberculosis)』(20센), 『결핵 증세가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강가이드 (A Health Guide For a Tendency to Tuberculosis)』(20센), 『결핵,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질병(Tuberculosis, A Preventable and Curable Disease)』(60센)의 3권이다. 모두 결핵예방 및 퇴치 홍보를 위해 판매하였으며, 홀 박사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러한 책자의 판매는 여러 경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셔우드 홀 2003:535-536).



〈그림 17〉 1933년 ‘퍼즐 맞추기’, 332mm×329mm, 퍼즐 2개 망실

다섯째, <그림 17><sup>6)</sup>에 보이는 ‘퍼즐 맞추기’와 달력(본고에서는 생략)이다. ‘퍼즐 맞추기’는 200조각 1세트가 2.5엔이었고, 달력의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제작 시기는 193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퍼즐 맞추기’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1933년 ‘캐럴 부르는 소년소녀’ 셀 도안부터였는데, 1934년 엘리자베스 키스가 도안한 ‘아기 업은 여인’도 제작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신동규 2016). 언제까지 ‘퍼즐 맞추기’가 제작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요양원에서 판매한 홍보자료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1933년의 경우 홀 박사는 소책자에 평양 감리교 지부의 활동상황을 소개하면서 “(평양의) 패인양은 ‘퍼즐 맞추기’를 최고로 많이 팔았다. 평양 감리교 지부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가장 열성적인 단체이

6) 본 자료는 셀 수집가 고 서원석 선생님의 손자 서동욱 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 유일하게 1점만 확인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필자가 직접 활용한 것이며, 활용과 논문 사용에 대해 해 쾌히 승낙을 해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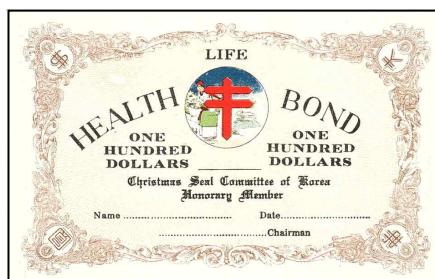
며 국내에서 최고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 회원은 50엔 만큼이나 팔았다. 그들의 정열과 열광은 아무런 막힘도 없었으며 조선인들도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Sherwood Hall 1933:11)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당시에는 영국대사관의 로이드 부부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로이드 부인은 부인들 모임에서 ‘페즐 맞추기’를 소개해주기도 했었다(Sherwood Hall 1933:13). 또 가톨릭 선교회의 콜리만이 홀 박사에게 “페즐 맞추기를 잘 받았으며 그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사업에 공헌될 기부금을 ‘페즐 맞추기’ 가격과 함께 동봉합니다.”라고 보내자 홀 박사는 “당신의 병원에 크리스마스 쌀 그림인 ‘페즐 맞추기’의 선물을 권유합니다. 환자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경주, 철원, 연변, 제물포 등 많은 지부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중략) 당신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페즐 맞추기’에 대한 홍보의 답장도 보내고 있었다 (Sherwood Hall 1933:13-14).

이 ‘페즐 맞추기’는 지속적인 인기를 모아 1935년도에 광주 쌀 위원회의 브랜드라는 사람은 “우리 지부는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쌀 캠페인’을 수행하기로 위원회에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열성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최고의 캠페인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판매용의 페즐 맞추기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와 병원, 시골지역 그리고 이 위대한 뜻을 가진 운동을 선전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사용할 포스터도 필요합니다.”(Sherwood Hall 1935:8)라고 추가 주문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페즐 맞추기’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었으며, 쌀 관련 자료의 판매고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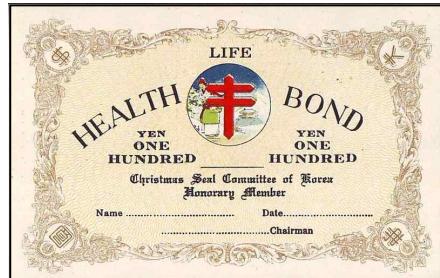
〈그림 18-1〉 1934년 보건증권 국문  
平生/100圓, 134mm×86mm



〈그림 18-2〉 1934년 보건증권 영문  
LIFE/100\$, 달러 표기, 136mm×90mm

부분이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보건증권으로 1934년부터 발행되었다. 이 보건증권은 구입한 사람들에게 결핵예방을 위한 각종의 혜택을 부여해준 증권으로서 평생[라이프](100엔/100\$)·금[골드](20엔/20\$)·은[실버](10엔/10\$)의 3종이 있으며, 각기 국문과 영문(엔과 달러 2종류)을 포함해 전부 9종이 있다(본고에서는 평생[라이프] 이미지 3종만 <그림 18-1·2·3>으로 제시). 1935년 ‘홍보용 소책자’에 의하면 이 증권을 처음 구입한 사람은 당시 크리스마스 셀 위원회의 명예회원이었던 쿠퍼 주교였으며, 보건증권에 등록된 인원만도 37명으로(Sherwood Hall 1935:3·17) 어떤 증권이 팔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증권을 발행한 초창기로서는 상당한 판매 액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이들 보건증권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양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결핵예방관련 자료들과 홍보물을 구입할 수 있는 특전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이것으로부터 보건증권의 발행 목적에는 더 많은 홍보물의 판매 촉진이라는 목적도 내재되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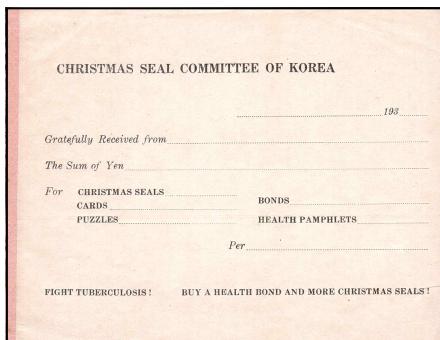
〈그림 18-3〉 1934년 보건증권 영문  
LIFE/100엔 표기. 136mm×90mm

## 제2장 홍보자료의 판매활동과 수익금 사용 실태

그렇다면 이들 판매용 홍보자료는 어떠한 형태로 판매되었고, 그 수익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홀 박사의 자서전 『조선희상』과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발행된 ‘홍보용 소책자’이다. 여기에는 정확한 판매 수익금 액수뿐만이 아니라, 판매된 기관이나 병원, 구입한 인물까지도 기재하고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요양원의 판매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1급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서전을 보면, 1932년에는 7명으로 구성된 ‘보급 선봉대’를 전국 각지에

파견하여 결핵예방과 퇴치를 홍보하면서 쌀을 판매했는데(셔우드 홀 2003:528-529), 쌀만 판매했던 것은 1932년 당시에는 쌀 이외에 판매할 홍보자료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터가 제작되기 시작한 1934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전개되어 ‘쌀 캠페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개별적 서신 발송과 함께 판매 실적이 가장 좋은 기관에 소정의 상금 수여하는 방법이 채택되기 시작했으며(셔우드 홀 2003:535), 앞에서 살펴본 ‘주문용 엽서’를



〈그림 19〉 1934년 무렵 쌀 관련 물품 주문서,  
151.5mm×118mm

전국 각지의 기관에 보내 판매용 홍보 자료의 주문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1934년 무렵에는 <그림 19>에 보이듯이 요양원에서는 판매를 위한 별도의 주문서<sup>7)</sup>도 제작해 판매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홍보용 소책자’에는 1932년의 활동 상황과 수익금의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실려 있는데, 그 활동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1〉(Sherwood Hall 1932:9-10)

- ① 자원봉사자(목사2, 의사3, 일반인2)들은 남쪽의 부산에서부터 북쪽의 성진(현재 김책시)까지 9,100명의 학생과 2,800명의 성인에게 쌀과 결핵퇴치의 중요성 및 공중건강과 교육적 가치를 선전.
- ② 위원장(홀 박사)은 각 신문사 편집장을 만나 쌀 캠페인 소개하고, 5대 일간지에 쌀 캠페인의 계재 및 사설을 통한 지면 할애.
- ③ 요양원 환자들에 대한 쌀 홍보 편지쓰기 요청과 환자들에게의 판매(70엔 판매).
- ④ 3,000개의 크리스마스 쌀 책자와 편지 발송.
- ⑤ 350엔의 최종 수익금 확보.

〈자료1〉 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반도의 남단인 부산에서 함경북도의 성

7) 이 ‘쌀 관련 물품 주문서’는 본고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미국의 수집가로부터 최근에 구입한 것이다. 주문서 2장이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입 신청할 때에 2장 사이에 멱지를 대고 기입하면, 첫장을 떼어내고 뒷장은 구입 신청자가 보관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진, 즉 현재의 북한의 김책시에 이르기까지 결핵퇴치를 위한 홍보를겸하여 썰의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단 7인의 자원봉사자가 한반도의 거의 전체를 홍보 활동의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놀랄 만하다. 더욱이 결핵예방과 퇴치에 대한 홍보, 결핵홍보자료의 판매에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대면한 9,100명의 학생과 2,800명의 성인들이라는 인원수로부터도 알 수 있다. 또한, ③으로부터 5대 일간지에 썰 캠페인의 활동과 사설을 통한 홍보활동,<sup>8)</sup> ④로부터는 전국적으로 3,000 개의 크리스마스 썰 책자와 편지를 발송했으며, ⑤에서는 최종적으로 350엔의 적은 액수이지만, 수익금도 올리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수익금은 평양의 연합교회병원에 50엔, 여주의 영국교회병원에 50엔, 함흥의 캐나다통일교회 병원에 50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75엔, 해주의 혜진학교에 75엔을 배분하였고, 소책자를 만들기 위해 해주구세요양원의 ‘썰 위원회’에 30엔, 나머지 20엔은 결핵 연구와 예방을 위한 검사 비용 등에 할당하고 있었다(Sherwood Hall 1932:10).

1933년에도 마찬가지로 ‘썰 위원회’에서는 캠페인 활동을 11월 10일부터 시작하였다. 그 활동은 ① 7대 신문사와 정기간행물들이 ‘썰 캠페인’에 관해 유효적절하고 반복적으로 지면을 할애해 주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큰 홍보를 보았다는 것, ② 세 곳의 큰 회사에서도 커다란 광고 면적을 썰 캠페인에 할애해 주었다는 것, ③ 9,000매의 썰과 항결핵 문헌 및 편지를 선교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까지 보냈다는 것, ④ 27,000여 명의 학생과 약 성인 1만 명에게 썰에 대한 이야기와 결핵 및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 ⑤ 수익금이 1,118.09엔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Sherwood Hall 1933:2), 이 성과는 1932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썰 위원회의 캠페인이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1933년의 수익금은 후원회인 ‘조선의료선교협회’에 의해 결산·분배되었는데, 환자를 수용한 침대 숫자에 기초하여 결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즉 평

8) 신문매체에 의한 홍보활동 관련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해주요양원 개시, 후원회 까지 조직하여 조력, 각지에 특파원을 파송」(『중앙일보』, 1932년 11월 29일) ; 「結核撲滅을 期코 저 朝鮮의으로 運動 海州結核療養院을 中心으로 撲滅後援会組織」(『毎日新報』, 1932년 12월 02 일) ; 「폐결핵 퇴치운동의 큰 사업 ‘크리스마스 썰’의 유래 정밀국 우편국원 ‘인나홈벨’이 시작(賀樂博士)」(『동아일보』, 1932년 12월 7일) ; 「結核病 予防問題, 크리스마스썰을 機로」(『동아일보』, 1932년 12월 8일, 사설).

양과 함홍, 해주구세요양원과 서울의 세브란스 결핵병동, 대구와 광주 등에 1,012.2 엔을 분배하였으며, 나머지 105.89엔은 1934년 캠페인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Sherwood Hall 1933:2). 당시 홀 박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1933년 캠페인은 우리의 공동의 적인 결핵을 상대로 모든 단체, 국가 및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중략) 아직까지는 결핵이 증가하고 있지만, 조선 내에서의 결핵에 의한 사망률과 보균율이 감소될 것을 확신한다.”(Sherwood Hall 1933:2-3)라고 하며 해주구세요양원의 결핵홍보와 퇴치활동에 대한 다대한 성과에 만족하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1934년의 썰 캠페인은 11월 7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제일 처음 썰을 구입한 사람은 황해도 도지사였다(Sherwood Hall 1934:1). 특히 1934년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2만장의 썰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그리스도교 관련이 아닌 많은 학교에서도 썰을 요청하여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물량 수급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도 인쇄 작업을 계속하는 현상도 벌어졌다(Sherwood Hall 1934:2). 그만큼 결핵 홍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범위가 확장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과는 아래와 같다.

<자료2>(Sherwood Hall 1934:2)

- ① 방문한 가정·학교·교회의 총수 3,000곳 이상.
- ② 결핵에 관한 좌담 횟수 420회 이상.
- ③ 건강 좌담을 경청한 개략적인 인원 : 성인 15,000명, 학생 36,000명.
- ④ 개략적인 배분 숫자 : 결핵관련 책자 500부, 항결핵 팜플렛 25,000장.
- ⑤ 결핵이 발견되어 기관에 보내진 인원 56명.
- ⑥ 보건증권에 등록된 인원 35명.
- ⑦ 순 이익금 1,507.81엔.

1932년에는 성인 2,800명과 학생 9,100명에게만 결핵홍보 활동을 선전했으나, 1934년에는 위의 <자료2>의 ③에 보이듯이 성인 15,000명, 학생 36,000명으로 대폭적인 홍보활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문한 가정과 학교만도 3천 곳 이상이며(①), 캠페인 중에 배부된 결핵 책자가 500부, 항결핵 팜플렛만도 25,000장이다(④). 또 1934년부터는 보건증권이 발행되었는데, 35명이나 등록하고 있어 수익금이 1,507.81엔이나 되었다(⑥⑦). 이 수익금은 1933년과 마찬가지로 ‘조선

의료선교협회’에 의해 결산·분배되었는데, 결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환자의 침대 개수에 따라 1,000엔을 분배하였고, 지역분배의 개념으로써 한반도의 북부 2곳(평양·함흥), 중앙 2곳(해주구세요양원·세브란스 결핵병동), 남부 3곳(대구·광주·전주)에 혜택을 주었으며, 나머지 507.81엔은 1935년 캠페인 준비금과 더 많은 항결핵 문현을 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남겨두었다(Sherwood Hall 1934:3).

1935년의 홍보활동을 통한 판매와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홍보용 소책자’에 상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1935년의 소책자에 기술된 활동성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3>(Sherwood Hall 1935:17)

- ① 방문한 가정, 학교 및 교회의 총수 5,000곳 이상.
- ② 결핵에 관한 좌담 횟수 560회 이상.
- ③ 건강좌담을 경청한 개략적인 인원 : 성인 22,000명, 학생 48,000명.
- ④ 개략적인 배부 숫자 : 결핵관련 책자 5,600부, 항결핵 팸플릿 5만장.
- ⑤ 결핵이 발견되어 기관에 보내진 인원 78명.
- ⑥ 보건증권에 등록된 인원 37명.
- ⑦ 순 수익금 1,791.22엔.

즉, <자료3>의 활동 수치들은 그 이전과 비하면 모든 항목에서 상당히 발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①에서는 방문한 곳이 5,000곳 이상, ②에서는 결핵관련 좌담 횟수가 560회 이상, ③에서는 좌담의 경청 인원이 성인 22,000명, 학생 48,000명이라는 수치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요양원의 결핵 홍보활동이 얼마만큼 확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⑦에는 홍보자료 판매의 순수익금이 1,791.22엔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1932년 홍보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최고의 판매액이었다. 수익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해주구세요양원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료선교협회’에 의해 결산·분배되었는데, 결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환자용 침대 개수에 따라 1,000엔을 한반도의 북부 3곳(용정천·평양·함흥), 중앙 2곳(해주구세요양원·세브란스 결핵병동), 남부 2곳(대구·광주)에 지급되고 있었다(Sherwood Hall 1935:19).<sup>9)</sup> 수익금 중에서 585.22엔은 공중보건에 관한 문현을 무료로 배포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206.05엔은

9) 같은 내용이 셔우드 홀(1938:4)에도 보이고 있다.

1936년 캠페인 준비금과 더 많은 항결핵 문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었다(Sherwood Hall 1935:19).

한편, 1936년도부터는 ‘홍보용 소책자’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홍보 활동이나 홍보자료의 판매액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수익금 사용처도 1934년도 12월에 해주구세요양원에서 발행한 「크리스마스 쌀 선전문」의 「1934년도 크리스마스 쌀 수익금 사용도예정(使用途予定)」에 따라 집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① 결핵예방 및 박멸에 적극적인 운동을 위하여, ②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요양할 도리가 없는 불쌍한 청년남녀를 위하여, ③ 결핵 병리연구 및 결핵연구소를 위하여, ④ 결핵병 요양의 책자 비용을 위하여”<sup>10)</sup>라는 기준이다. 물론, 이 자료가 1934년도의 수익금에 대한 1935년도의 사용처를 예정한 것 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도 홀 박사의 자서전이나 해주구세요양원의 『요양촌』을 보더라도 이 기준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홀 박사 자신이 요양원의 원장이면서도 1932년 아래의 ‘쌀 캠페인’에 의한 쌀과 홍보자료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해주구세요양원의 운영비가 아닌 결핵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언급해왔던 그리스도교 정신의 구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 조선에서도 여러 지사들의 성원협조로 이 사업이 성공되어 다른 나라와 같이 결핵병을 박멸하고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란다.” (셔우드 홀 1938:5)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다. 둘째는 조선에서 태어나 식민지 조선의 결핵 퇴치에 선구적 역할을 다했던 그가 일제에 의해 1940년 11월 억울하게 스파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조선을 떠나는 부산항에서 태극기를 향해 가족 모두가 ‘만세’를 외칠(셔우드 홀 2003:711) 정도로의 조선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10) 「크리스마스 쌀 宣伝文」의 「1934年度 크리스마스 쌀 収益金 使用途予定」(해주구세요양원, 1934년 12월, 서동욱 소장); 신동규, 앞의 논문(2015), 366-367쪽 참조.

## 결 론

이상, 해주구세요양원의 다양한 결핵관련 홍보자료를 토대로 이 자료들의 판매 활동과 수익금의 활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데, 세 가지 점으로 논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주구세요양원에서 발행한 비매품과 판매품의 홍보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즉, 순수 홍보자료라고 하더라도 ‘홍보용 소책자’와 봉투 및 편지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는 편의에 따라 판매되었으며, 특히 비매품의 ‘홍보용 소책자’, ‘모금용 편지’, ‘미니포스터’, ‘씰 도안설명서’ 등에서는 판매용 자료 까지도 홍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매품이 일종의 판매증진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고에서는 ‘주문용 엽서’를 통해 각기 홍보자료의 가격을 명확히 규명하였고, 동시에 이들 홍보자료들의 판매를 위한 ‘씰 캠페인’이 대중들의 인기 속에서 결핵기금의 확대로 이어져갔음을 밝혔다. 특히 포스터(1엔/1.5엔)와 목판연하장(20센/30센), ‘결핵관련 책자(10·20·60센)’, ‘퍼즐 맞추기(2.5엔)’, ‘보건증권(10·20·100엔)’은 상당한 인기를 모으게 되면서 판매 수익금의 증가로 연결되어 갔고, 1932년:350엔→1933년:1,118.09엔→1934년:1,507.81엔→1935년:1,791.22엔이라는 순수 수익금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결핵기금의 극대화로 이어졌다.

셋째, 판매활동의 방법과 수익금의 사용 실태에 대한 규명이다. 판매활동은 기본적으로 ‘씰 캠페인’과 핵심인사들에 대한 우편 및 ‘주문용 엽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판매증진을 위해 판매 성적이 좋은 기관에 대한 포상과 홍보자료의 ‘무료증정’이라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었다. 한편 수익금은 대부분 ① 결핵예방 및 박멸 운동, ② 빈곤한 결핵환자, ③ 결핵연구와 결핵연구소, ④ 결핵관련 책자의 발간 비용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해주구세요양원의 운영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결핵관련 기관과 병원에도 배분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해주구세요양원이 식민지 조선의 결핵예방과 퇴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었다는 것을 본고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식민지기의 병원이나 조선총독부 관련 기관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시의 결핵 인식과 대응을 금후의 과제로 삼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 ■ 참고문헌

- 신동규(2016) 「일제침략기 海州救世療養院의 결핵예방과 퇴치를 위한 홍보인쇄자료의 분류와 성격에 관한 검토」, 한일관계사학회 제165회 월례발표회, 2016.3.12. 발표.
- 최은경(2015)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정책(1910~1945) : 소극적 규제로부터 시작된 대응과 한계」, 『医史学』45, 大韓医史学会, 2013), pp.713~757.
- 신동규(2015) 「일제침략기 결핵전문 요양병원 海州救世療養院의 설립과 운영 실태에 대한 고찰」, 『韓日關係史研究』52, 한일관계사학회, pp.341~382.
- 신동규(2013) 「일제침략기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과 크리스마스 씬(Christmas Seal)을 통해 본 한일관계에 대한 고찰」, 『韓日關係史研究』47, 한일관계사학회, pp. 189~226.
- 셔우드 홀/김동열 역(2003) 『닥터 홀의 조선회상』, 좋은씨앗, pp.461~717.
- 셔우드 홀(1938) 「結核撲滅運動의 唯一한 方法인 크리스마스 씬의 由來와 發展」, 『療養村』4, 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pp.2~5.
- Park Yun Jae.(2013). 「The work of sherwood Hall and the haiju tuberculosis sanatorium in colonial Korea」, 『医史学』45, 大韓医史学会, pp.681~712.
- Sherwood Hall.(1935). THE STORY OF KOREA'S FOURTH CHRISTMAS SEAL CAMPAIGN, no publisher, pp.1~20.
- Sherwood Hall.(1934). THE STORY OF KOREA'S THIRD CHRISTMAS SEAL CAMPAIGN, Seoul Korea, Y.M.C.A. Press, pp.1~20.
- Sherwood Hall.(1933). THE STORY OF KOREA'S 1933 CHRISTMAS SEAL CAMPAIGN, Seoul Korea, Y.M.C.A. Press, pp.1~16.
- Sherwood Hall.(1932). THE STORY OF KOREA'S FIRST CHRISTMAS SEAL, Seoul Korea, Y.M.C.A. Press, pp.1~15.
- 해주구세요양원(1934) 「크리스마스 씬 宣伝文」.
- 『동아일보』(1932.12.7) 「폐결핵 퇴치운동의 큰 사업 '크리스마스 씬'의 유래 정밀국 우편국 원 '인나홈벨'이 시작(賀樂博士)」.
- 『동아일보』(1932.12.8) 「結核病 予防問題, 크리스마스씰을 機로」.
- 『毎日新報』(1932.12.02) 「結核撲滅을 期코자 朝鮮의으로 運動 海州結核療養院을 中心으로 撲滅後援会組織」.
- 『중앙일보』(1932.11.29) 「해주요양원 개시, 후원회까지 조직하여 조력, 각지에 특파원을 파송」.

## ■ Abstract

### Profits of the Haiju Tuberculosis Sanatorium from the Sale of Promotional Material during Japanese Occupation

Shin, Dong Kyu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romotion and sale of materials related with tuberculosis that were published by the Haiju Tuberculosis Sanatorium, and the center's subsequent use of the profits. The Haiju Tuberculosis Sanatorium was the first professional hospital that treated tuberculosis in Korea. First,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opularity with the public of the campaign to sell promotional materials in the form of postcards, in addition to pamphlets and other promotional materials, in order to raise funds for tuberculosis treatment. Second, sales strategies were employed as part of a mailing campaign, and postcards were sold to key personnel. In this scenario, rewards were offered to institutions with good sales records, and in return they were given free promotional materials. Most parts of these profits were used for ①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tuberculosis, ② the treatment of poor tuberculosis patients, ③ further research on tuberculosis, and ④ publishing tuberculosis-related books.

**Key words :** Haiju Salvation Sanitarium, Sherwood Hall, tuberculosis, Christmas Seal

## ■ 日本語抄録

### 日帝強占期「海州救世療養院」の結核関連広報資料の販売と収益金の活用に関する考察

申 東珪

本稿は、韓国初の結核専門療養病院であった海州救世療養院から発行していた様々な結核関連の広報資料をもとに、この資料の販売活動と収益金の活用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要約す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第一に、本稿では「注文用はがき」と「広報用小冊子」などをもとにして、広報資料の販売のための「シールキャンペーン」が大衆からの人気を博すなかで結核基金の拡大につなが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これは1932年に350円、1933年に1,118.09円、1934年に1,507.81円、1935年に1,791.22円という収益金の増加数値が立証してくれる。第二に、販売活動は「シールキャンペーン」をはじめ、核心人物たちへのメールや「注文用ハガキ」を通して行われ、販売成績が良い機関への褒美と広報資料の「無料プレゼント」という方法も利用されていた。また収益金はほとんどは、①結核予防と撲滅運動、②貧困結核患者、③結核研究と結核研究所、④結核関連冊子の発刊費用に使われていたが、そのほかにも全国各地の結核関連機関や病院にも配分されていたという点から海州救世療養院は、植民地朝鮮の結核予防と撲滅のための最も核心的な機関であったと評価できる。

**キーワード :** 海州救世療養院、シャウド・ホール、結核、クリスマス・シル

<필자인적사항>

성 명: 신동규

소 속: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연락처: eastasia@dau.ac.kr

투고마감일: 2016.04.30.

심사개시일: 2016.05.15.

제재확정일: 2016.06.15.

